

# 그리스도인의 지역사회 기여

Wim Rietkerk

빔 리트게르크

인터뷰어/통,번역 성기진 사진 성의진

## 빔 리트게르크(Wim Rietkerk)를 소개합니다!

네덜란드 라브리공동체 대표이며 20여 년간 국제라브리 회장을 역임했다. 목사이자 위트레흐트 시의 원으로 활동하며 유대인 추모비를 건립하는 등 지역사회에 올바른 역사 인식과 세계관을 심어 주려고 노력했고, 그 공로로 네덜란드 국왕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수여받았다.





#### Q. 위트레흐트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위트레흐트(Utrecht)는 주후 1세기 로마 요새로 시작되었고, 중세 시대를 거치며 오랫동안 네덜란드의 영적 중심지 역할을 해 왔다. 지금은 인구 30만 명으로 네덜란드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지만, 라브리가 있는 구도심에는 대성당과 수도원 등 예전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다. (네덜란드 라브리는 위트레흐트의 도시 지부와 에켄빌의 합숙 공동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 Q. 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13년 전이었다. 어느 수양회에서 강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개혁주의 정당인

기독교연합당(CU)이 차지하고 있던 시의회 두 자리 중 한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한 번 도전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그날 내가 강의했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4~7절이었다.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이후 6년간(공석의 잔여임기 2년, 재선 4년) 시의원으로 봉사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_렘 29:5~7

#### Q.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구체적으

## 로 어떤 뜻인가?

이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나그네의 처지가 되어서도 그들이 머무는 성읍의 평안(shalom)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포로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다. 베드로전서 1장을 비롯하여 신약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비록 세속적인 나라일지라도 지역사회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나는 샬롬이라는 말을 도시를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도시의 녹지화와 공해 절감을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노숙자와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최하층민을 돕는 것으로 이해한다. 번영이란 도시의 재정을 책임감있게 관리하는 것으로, 정직한 행실과 형평성있는 예산 집행을 요구한다. 15억 유로(1조 9천억 원)의 예산을 책임진 45명의 시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 Q. 시의원이 되어 맨 처음한 일은 무엇인가?

라브리 맞은편에 있는 오래된 교회에 예수상이 있는데, 언젠가 왼손의 손가락이 떨어져나갔다. 이 손가락을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 Q. 어떤 계기로 유대인 추모비를 건립하게 되었는가?

임기가 끝나갈 무렵 한 유대인으로부터 우리 도시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아내 그레타는 독일인이다.) 2차 대전 당시 위트레흐트에 살던 1,400여명의 유대인이 나치에게 끌려갔고, 심지어 마흔여덟 명의 고아원 아이들까지 하루 아침에 가스실에 보내졌는데 다른 시민들은 그들을 전혀 돕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구가 크게 성장한 지금도 위트레흐트의 유대인은 300여명에 그치고, 네덜란드의 주요 도시 중 유일하게 추모비가 없었다. 악을 방관한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외면이 우리 지역 전체에 짐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억과 사죄,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Q. 추모비를 소개를 한다면?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끌려간 기차역은 이제 철도 박물관이 되었다. 그 앞의 광장에 있는 못생긴 담벼락을 헐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14장의 돌판을 세웠다. 돌판에는 나치에게 죽임을 당한 1,200여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망 날짜와 장소를 새겼고, 더 정확한 자료가 발견되면 지금도 종종 수정이나 추가가 이루어지며, 생존자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끌려간 1,400여명 중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유대인은 100여명에 불과했다.)

돌판 중앙에는 다윗의 별과 함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을 네덜란드어와 히브리어로 새겼고, 그 앞에는 한 예술가의 재능기부로 빨나팔 모양의 조형물을 세웠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빨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이면서 희년을 알리는 반가운 소리이기도 했다.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경고의 의미와 함께, 샬롬 즉 관계의 회

복이라는 희망을 주는 상징이다. 추모비가 있는 자리는 유대인들이 줄지어 끌려간 길목이고, 이제는 철도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들이 줄지어 지나는 곳이기도 하다.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살림을 물려주고 싶었다.

### Q. 건립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는가?

네덜란드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을 모두 모아 놓고 장시간 토론을 하는데 한 두 가지 이견 때문에 논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각각의 논제를 분리하여 다루는 전통이 있다. 지난 70년간 위트레흐트에 유대인 추모비가 세워지지 못한 이유를 자세히 파악한 뒤, 시의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의 지도자들과 시장을 미리 설득해 두었으며, 유대인 지도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며칠간 의견을 들은 덕분에 건립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재정이었다. 총 20만 유로(약 2억 6천만 원)가 들었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충분한 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비를 털어서라도 채워야 할 판이었다. 재정 때문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나는 시장과 다른 의원들에게 “익명의 후원자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 후원자가 누구인지는 아직도 나밖에 모른다.

### Q. 익명의 후원자가 누구였나?

당연히 하나님이다! 라브리 사역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추모비 건립이라는 공적인 사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 있었다. 많은 후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보냈고, 철도 박물관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철도청에서도 미화 2만 5천 달러를 기부했다. 돌판을 옮기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마침 미국에서 2차 대전 당시의 기록을 연구하던 사람이 네덜란드 철도청에서 독일 정부에 유대인 수송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견했다. 이 사실이 보도되면서 나치에 협력했다는 지탄을 받게 된 철도청은 사죄의 의미로 위트레흐트의 유대인 추모비 건립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Q.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의 현안을 다룰 때 비기독교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다니엘 5장의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벨사살 왕의 잔치 자리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는데, 당시 문자는 자음만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은 모음을 어떻게 끼워 넣느냐에 따라 화폐의 단위로 읽을 수도 있었다. 왕의 지혜자들이 ‘천 원, 백 원, 십 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니엘은 벽의 글자를 보자마자 화폐의 단위(므나, 세겔, 베레스)가 아닌 ‘세다, 달아 보다, 나누다’라는 뜻으로 읽었다. 어느 쪽이 옳은지 글자만 보아서 알 수 없다. 문맥을 이해해야 올바른 모음을 끼워 넣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관의 차이이다. 은과 금의 우상을 숭배하던 바벨론 사람들은 돈만 생각했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의 죽음과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니엘 5장의 사건을 기억하라!  
어느 쪽이 옳은지는  
글자만 봐서는 알 수 없다.  
문맥을 이해해야하고  
그 문맥을 읽어내는 힘이  
바로 세계관이다.



경제 논리로 가득 찬 오늘날의 정치와 사회 현안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과 같은 안목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돈 문제처럼 보이는 수많은 이슈들은 사실 하나님을 잊은 세속주의, 물질주의의 증상일 뿐



이다. 돈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굳건한 목표를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진정한 살롬, 즉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이다. 왜 하나님은 멸  
 망하기 직전의 바벨론, 죽기 직전의 벨사살 왕에게 글  
 자를 써서 보여 주셨겠는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돌이  
 켜 회개하면, 그를 구원하고자 했던 사랑의 표현이었  
 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도 정치적, 경제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  
 이 경고를 귀담아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깨  
 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Q. 네덜란드 사회에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 을 해야 하는가?

2차 대전 종결 후 독일은 물론이고 네덜란드에서도  
 나치와 협조했던 개인과 기업, 기관 등에 대한 규탄  
 과 이들의 조건 없는 사과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도 국왕과 총리가 자주 방  
 문하여 화해를 위해 노력했고, 심지어 300~400년 전  
 노예 무역에 종사한 선원의 후손들이 노예의 후손들  
 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사과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  
 임도 열렸다.

위트레흐트에서 유대인 추모비 건립까지 70년이나  
 걸린 것이 보여 주듯이, 정부에서 항상 앞장서지는 않  
 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그  
 리스도인들이 먼저 작게나마 화해와 기도를 시작한



경제 논리로 가득찬  
오늘날의 정치와 사회 현안을  
그리스도인은  
다니엘과 같은 안목과 용기로 봐야 한다.  
돈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굳건한 목표를  
세상에 선포하여  
진정한 살롬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임무이다.



다면 사회 곳곳에 회복의 섬들이 나타날 것이다.

**Q. 과거사 문제는 동아시아에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적극적으로 사과했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다. 최근에도 사과를 조건으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등 많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정부가 나서서 사과하고 화해를 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위트레흐트에서도 유대인 추모비를 건립하기는 했지만, 과거의 외면과 차별에 대해 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해 달라는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유럽에는 기독교 전통과 가치관이 남아 있었기에 독일이 전쟁 후 회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통이 없는 일본이 진

심으로 사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사과를 조건으로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조건으로 사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태도이다. 가해자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의 문제이지만, 피해자가 원한과 적개심의 감옥에 갇혀 인생의 다음 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용서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용서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 평생 지은 죄들을 일일이 고백하고 사과해야 한다면 천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진심 어린 사과는 요구한다고 억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과를 받지 못하더라도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관계의 회복, 살롬을 이룰 수 있다. 일본에도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니, 앞서 말한 네덜란드 선원의 후손들과 노예의 후손들처럼 용서를 통해 작게나마 회복의 섬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서 나는 희망을 얻는다. 새 예루살렘의 강가에 드리운 나뭇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주위의 깨어진 관계들을 조금씩이나마 회복시키고, 돈과 자연의 청지기 노릇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듣고 세상의 경제논리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자.

※ 본 내용은 지난 2017년 1월, 한국라브리공동체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